

보도시점 2024. 12. 26.(목) 11:00
< 12.27.(금) 조간 >

배포 2024. 12. 26.(목)

지역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‘지역산업활력펀드 2.0’ 본격 출범

- 벤처투자가 부족한 지역기업에 총 1,080억 원 투자 예정

벤처투자가 부족한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.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‘산업부’)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‘지역산업활력펀드 2.0’을 총 1,080억 원* 규모로 최종 결성하여 내년부터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.

* 산업부 산업기술혁신펀드(모펀드) 400억 원, 한국산업은행 100억 원, 전남 50억 원, 경북 50억 원, 전북 30억 원, 충남 20억 원, 민간투자 430억 원

금번에 결성한 지역산업활력펀드 2.0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투자를 진행한 지역산업활력펀드(260억 원 규모)의 후속 펀드이다. 지역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대 등 그간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기존 펀드에는 없었던 지방정부의 공동출자 등을 통해 기존보다 4배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조성하였다. 지역산업활력펀드 2.0은 비수도권 시·도에 위치*한 중소·중견기업에 펀드의 60%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며, 특히 공동출자자로 참여한 지방정부가 지정한 첨단산업**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.

* 본점, 주사무소, 공장, 연구소 중 하나 이상을 두고 있거나, 1년 이내 이전 예정인 경우

** ▲(전남·경북) 반도체, 디스플레이, 핵심소재 등, ▲(전북) 이차전지, ▲(충남) 모빌리티

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날 펀드 위탁운용사와 출자사 간 펀드 결성을 위한 계약 체결을 기념하여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, 지역산업활력펀드 2.0의 기본 투자·운용 전략과 지역펀드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 오 실장은 “최근 자본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산업활력펀드 2.0이 1천억원 이상 규모로 결성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”며, “투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부 연구개발(R&D) 전담은행이 운영하는 혁신기관 전용 저금리대출,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개발(R&D) 역량강화 컨설팅, 산업부-교육부 간 협업사업인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	책임자	과 장	이영호 (044-203-4410)
		담당자	사무관	최현상 (044-203-4411)



1. 펀드 구성 및 투자대상

□ 산업부 산업기술혁신펀드를 모펀드로 총 1,080억원 규모로 결성

* 산업기술혁신펀드 400억원, 한국산업은행 100억원, 지방정부 170억원(전남 50억원, 경북 50억원, 전북 30억원, 충남 20억원), 민간투자 430억원

□ 지역 소재 유망 기술기업이 주목적 투자대상(* ①~③ 모두 충족 필요)

① 지역 소재 중소·중견기업에 결성금액의 60% 이상 의무투자

* 공동출자한 지자체에 출자금액의 200% 우선투자(전남·경북 100억, 전북 60억, 충남 40억)

② 우수기술기업에 결성금액의 80% 이상 의무투자

* 투자용 TCB 기술등급 상위 5등급(TI5) 이상, 또는 관련 법령상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

③ 5년 이내 산업부 R&D 수행 기업에 결성금액의 20% 이상 의무투자

2. 기존 지역산업활력펀드와 신규 지역산업활력펀드 2.0 비교

	지역산업활력펀드	신규 지역산업활력펀드 2.0
결성 규모	260억원	1,080억원
존속 기간	8년 (투자 4년 + 회수 4년)	8년 (투자 4년 + 회수 4년)
지자체 참여	(참여 없음)	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 4개 지자체가 공동 출자자로 참여
투자 대상	지역 소재 기업	지역 소재 기업 (반도체,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강화, 공동출자 지자체에 대한 우선 투자 포함)